



제 3 4 0 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 6. 19.(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66
발의일자	2023. 5. 31.
회부일자	2023. 6. 0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수여대상자 및 주요공적

연번	인적사항				주요공적	비고
	소속 (주소)	직명	성명	출생		
1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학교	명예 총장	이운석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화합포럼 공동대표 • 경북전남 상생협력사업 공동 대응 	
2	연세대 의대	교수	인요한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앰블런스 개발 등 • 특별 귀화(독립유공자 후손) 	
3	(사)한국 해비타트	이사장	윤형주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독립운동유공자 주택지원 • 울진산불피해 이주민 이동식주택 지원 	
4	경기도 용인시	배우	이정길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1호 고향사랑 기부 	
5	서울시	배우	전광렬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의료관광 홍보대사 • 경북 문화관광분야 특별자문 	
6	충청북도 진천군	가수	김다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문화예술분야 홍보대사 • 성주참외, 영주시 홍보대사 	

4. 관련근거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5. 검토의견

□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 명예도민증은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 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거나,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6명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이 수여되었으며,

연번	수여일	성명	국적	생년 (성별)	공적내용
1	2013.08.31	Kadir Topbas (카디르톱바쉬)	터키	1945 (남)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개최 유공 등
2	2014.10.29	Peter Fulde (피터 풀데)	독일	1936 (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과학 인재 육성 등 기초과학 발전 기여

연번	수여일	성명	국적	생년 (성별)	공적내용
3	2014.10.29	Nasanjargal Tovuudorj (나상자르갈)	몽골	1980 (여)	도 농업기술의 몽골보급 및 교류 등 협력 가교역할
4	2018.05.02	Daisaku Ikeda (이케다 다이사쿠)	일본	1928 (남)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전개
5	2023.04.27	김영록	한국	1955 (남)	영호남 지방시대 주도를 위한 상생화합 협력사업 추진
6	2023.04.27	서동욱	한국	1969 (남)	영호남의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생업무협약 체결

○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민의 날과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도 직영 관람지 무료입장, 도정관련 교육의 강사로 초빙, 도정백서, 도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의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6명으로,

- **이윤석**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명예총장은 국회의원 재임(제18·19대) 시인 2013년부터 영·호남 국회의원들의 화합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을 출범·운영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영·호남 간의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지역개발사업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4대에 걸쳐 3·1운동, 6·25전쟁,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공헌한 린튼가의 후손으로, 한국형 구급차 개발 등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 1호로 대한민국에 특별귀화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명예도민이 될 경우, 경북도의 의료정책 자문과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윤형주 (사)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경상북도 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2년 울진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목조주택 1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북도 내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이정길 배우는** 함경도 실향민으로서, 배우활동 중 다수의 작품을 촬영하게 된 인연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경상북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경북도에 첫 번째로 기부한 1호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명예도민이 될 경우,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우로서의 깨끗한 이미지를 활용한, 경상북도 문화·관광분야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전광렬 배우는 1999년 ‘허준’, 2006년 ‘주몽’, 2010년 ‘제빵왕 김탁구’ 등 국민적 인기를 얻은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한,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배우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경상북도 한방산업·의료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한방 엑스포’ 등 각종 행사 참여를 통하여 경북 한방산업 및 의료관광 홍보에 기여하였고, 2020년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분야 특별자문」으로 위촉되어 경북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김다현 가수는 2021년 국민적 인기를 얻은 트로트 경연프로그램 ‘미스트롯2’에 출연하여 3위에 입상한 인기가수로서, 경연 때 열창하여 큰 인기를 얻은 ‘회룡포’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그 인연으로 같은 해 4월 예천군 명예군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2022년 3월 성주참외 홍보대사, 4월 경상북도 문화예술 홍보대사, 8월 영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높은 인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분야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 명예도민증 수여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된 수여대상자 6명은 각각의 활동분야에서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기존에 선정된 명예도민들의 경우 명예도민증 수여에만 그칠 뿐,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6명의 명예도민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향후 명예도민의 양적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일회성의 명예도민증 수여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이 경상북도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예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